

# 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

###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추진 계획' 수립·시행...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학부모 교육비 절감·원비 안정화 목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1년도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원비 안정화에 기여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우선, 2021년도 유치원비를 동결하는 유치원에는 동결지원금을 지원한다. 전년대비 원비 총액의 0.8%(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내 인상까지 동결로 인정한다.

원비 수준이 낮고 학급수가 적은 소규모 유치원에 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월평균 원비(지원금 포함) 35만8,000원 미만 유치원에는 급당 34만원이 지원되나, 50만7,000원을 초과하면 급당 14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도내 학부모부담금 평균(13만 3,000원) 원비의 2배를 초과하는 고액 원비 유치원은 동결지원금 지원 대상

에서 제외된다.

2021년에는 유아교육비 지원 단가 인상(유아학비 31만원→33만원)으로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비 부담 경감이 실현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하고, 새학기 시작 전 사립유치원의 원비 상한률 준수 여부, 원비 책정 근거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중 약 63.9%(20.4.1

기준)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현실을 고려해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원비 안정화 방안과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을 연계해 무분별한 원비 인상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도내 사립유치원 137개원 771학급에 총 41억7650여만 원의 원비 안정화 지원금을 지원했다. /정은성 기자



## 실험실 17건 창업·지재권 57건 확보

### 전북대 '3년간 추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성과

전북대학교가 지난 3년 간 추진해 온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활성화를 모색하는 'JBNU Start-up Lab, 2021'을 지난달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2018년 5월 전국 5개 대학(전북대, 송실대, 연세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3년째 운영 중이다.

전북대는 지난 3년 간 17건의 실험실 창업(법인 15, 개인 2)과 중기부 지원사업인 초기창업패키지 연계를 통해 3개의 초기창업기업에서 4억 5천만원의 사업과 자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57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창업경진대회 학생리그에서 2팀 입상, 산학EXPO에서 우수상 수상, 전주시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는 등 성과도 있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했다. 사전 신청으로 온라인 100명, 현장 참여 50명 등이 함께했다.

이 행사에서는 1단계(2018년~2019년)에 선정된 5개 실험실과, 2단계(2020년)에 선정된 14개 실험실의 전시부스가 설치돼 기술사업화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전시했다.

특히 전북대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교수이자 ㈜시지트로닉스 대표인 심규환 교수가 '실험실 창업 성공 사례'라는 주제로 특강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이스텐드 바이오의 김정현 대표는 "창업은 자신을 비취볼 수 있는 거울이다"며 "실험실에서 보지 못했던 본인의 기술이 창업기업을 통해 평가 받고 비취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권대규 창업지원단장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교내 교원창업의 확산과 성공창업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전북대학교의 잠재된 우수 기술을 발굴해 성공적인 기술창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사회적경제 대학협의회 25개 대학 사회적경제 활동사례·우수성과 교류

사회적경제 대학협의회(추진위원장 유남희)가 제1회 전국 대학 사회적경제 컨퍼런스'를 열고, 사회적경제 분야 발전과 대학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회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수행하며 축적된 산학협력과 지역사회 혁신 역량을 보유, 전국 2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K행복나래 등이 함께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김영배 의원이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의 희망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특히 25개 참여 대학들은 그간의 사회적경제 활동 사례와 성과들을 공유하고 대학과 사회적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북대는 그간 사회적경제 분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대학협의회 포럼을 지속해왔고, 전북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우선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등 그간의 우수 사례를 발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전북대 LINC+사업단은 지난달 18일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사회적경제 대학협의회 등과 3차 간 협약 체결하는 등 산학관 네트워크 구축과 확장에 노력하고 있다.

고영호 LINC+단장은 "권역별 공공기관, 이번 제1회 전국 대학 사회적경제 컨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유튜브로 송출됐으며, 전북대 LINC+사업단 홈페이지(www.lincplus.jnu.ac.kr)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사회적경제 대학협의회가 '전국 대학 사회적경제 컨퍼런스'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전북교육청, 3월 1일자 교원·교육전문 인사 발표

전북도교육청은 3월 1일 임용예정인 유·초·중등학교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수석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발표 내용은 승진, 전직, 전보, 중임, 퇴직 등 교장, 원장, 교감, 원감 287명, 교육전문직원 59명, 수석교사 8명 등 총 354명의 임용이다.

이번 인사발표에 따르면 진안교육지원청 이인숙 교육장과 순창교육지원청 김택수 교육장의 정년퇴임에 따른 것



박종각 교육장



이은희 교육장



길영균 원장



이한규 원장



김정기 원장

으로 후임은 전주중앙중학교 박종각 교장과 전주서원초등학교 이은희 교장을 각각 임용했다. 또 김학산 전라북도 교육연수원 원장과 김영찬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원장의 정년퇴임에 따른 후임으로는 길영균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원장과 봉서초등학교 이한규 교장이, 공석이 되는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원장은 김정기 전라북도교육연구개발원 원장을 차용한다. /정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상호대차서비스 택배비 지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월 24일부터 '책바다(국가상호대차서비스, 이하 책바다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상호대차서비스 택배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책바다 서비스는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해 소장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다. 현재 공공·대학·전문도서관 등 1,000여 개의 도서관이 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소속의 교육문화회관과 도서관에서도 책바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왕복 택배비 5,200원 전액을 부담했다.

책바다가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책바다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 도교육청에서는 올해 2월부터 소속 교육문화회관 및 지역주민 등 모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소속 교육문화회관과 도서관 이용자들은 책바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 2,600원의 택배비만 결제하면 된다.

한편 책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책바다 서비스 누리집 가입 후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의 회원 승인을 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